

속 기 록

- ☐ 회 의 명 : 제419차 위원회 전체회의
- ☐ 일 시 : 2026. 5. 27(수) 14:08 ~ 17:56
-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 출석위원 : 이범현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대현 위 원 (인)
문삼화 위 원 (인)
서영수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임영욱 위 원 (인)
진 슬 위 원 (인)
차지언 위 원 (인)
- ☐ 불참위원 : 김상연 위 원

1. 성 원 보 고

이범헌 위원장 : 지금부터 제 41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9기 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그리고 또 전체회의 관행에 따라서 김정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 효율성을 위해 기획조정팀 장다운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 8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온라인 줌으로 서영수 위원님과 김대현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나머지 3인은 조금 늦게 참석을 하실 겁니다. 차지언 위원님, 김상연 위원님, 구문모 위원님은 참고로 조금 늦게 참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 개 회 선 언

이범헌 위원장 : 예. 이상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안),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에 대한 올해의신작(연극, 무용 창작오페라 분야)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4건과 2027년 베니스비엔날레 제20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수정) 등 보고안건 6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전체회의에 들어가서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4월 24일 개최한 제 417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9건이 상정되어서 9건 모두 원안의결 되었으며, 4월 27일에 개최한 제 418차 임시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이범헌 위원장 : 예. 내용 표는 참고용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1205호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우영 인사소통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의결안건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8대 사무처장 선임을 위한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의 임명 주요사항 관련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입니다.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현 사무처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위원회 정관과 사무처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무처장의 주요 역할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관장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부분이 주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는 내부적인 행정과 관련해서 각종 내부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기타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의 안사람으로서 모든 주요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추진 목적입니다.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8대 사무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서 일반 정규직 안에 있는 최고위 직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무처장이라는 직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절차적 선정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준용해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끝낸 최종 후보자를 위원장에게 추천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3명 중 계속 근무를 같이 하실 사무처장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만약 의결된다면 의결된 사항을 반영해서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린 다음에 1차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1차 추천위원회에서는 사무처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처장 후보자 모집 방법과 공모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가 끝난 다음에 사무처장 후보자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진행된 다음, 위원장님 최종 선정을 위한 사무처장 최종 후보자를 추천 시기까지가 전임 사무처장님의 최종 임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안)은 임원추천위원회 내부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했고요. 내부 추천위원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3인 그리고 외부 추천위원은 1인은 당연직 형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인 김○○ 과장님. 그리고 규정상 내부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노동조합에서 추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동조합 비대위와 논의해서 추천을 받은 부분이고요. 박○○ 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무국장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추천위원으로는 사전에 회의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위원장님께 사전에 추천을 받았고요. 사전 추천을 받은

위원님들께 이미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늘 만약 의결이 된다면 내부위원 3인과 외부위원 2인으로 총 5인의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게 되고 이 사무처장 추천위원회는 즉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이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기존에 9기 위원회가 선임되고 출범을 하고 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임기가 위원회 3년 주기에 맞춰져서 사무처장의 임기가 3년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관례적인 기본 규정에 의거한 준비사항이라서 특별한 의견이 따로 없으시면 본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지난 5월 초순에 위원장님과 새로운 9기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호선 문제 때문에 긴급 임시의회의로 만나고 오늘 419차 위원회가 공식적인 의결안건을 다루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9기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건인데요. 송시경 사무처장님이 8기 때 시작했는데 벌써 세월이 빠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궁금한 것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도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 명기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9기인데 사무처장은 8대로 되어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동안 사무처장이 임명이 되었다가 개인적인 사직을 하고 직무대행으로 운영된 기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어긋나 있군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예.

성기숙 위원 :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7기 때를 보면 내부위원 3인에 외부위원 2인인데요. 이것은 아까 인사팀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외부위원의 경우 문체부의 예술정책과장은 아마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요. 우리 위원회 지도감독 기관의 과장님이니깐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추천인데 지난 7기 때를 보니까 노동조합 추천으로 한미회계법인 연구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위원회 외부의 분이 추천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추천된 박○○이라는 분은 예전에 문예위의 사무처 본부장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이 분을 잘 알고 훌륭한 분이시죠.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여러 가지 지원심의도 그렇고 인사를 선임할 때 이해충돌이나 제척, 기피, 회피 등이 민감하게 작동되는데 문예위의 사무처장을 추천하는데 노동조합에서 과거 사무처의 직원 출신, 그것도 아주 요직의 본부장을 지내신 분이 추천되었는데요. 노동조합에서 내부 출신을 추천했을 때 자체 내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면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 의문이 해소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주신 부분은 대부분 이해관계는 됐고 박○○ 추천위원이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되었는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모제라서 내부 출신 지원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통상 그 업무 분야에서 3년 이내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충돌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 규정, 문화예술위원회의 인사규정에 내용이 있으면 참고로 설명을 주무 부서에서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우선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만 정정하고자 합니다. 외부위원으로서 7대 사무처장 추천위원회 때 추천되었던 김재중 연구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획조정팀장까지 역임하고 퇴직을 했던 직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사무처의 근무를 했던 직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위원회 구성원의 의견 대변'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자가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심의사항에 있어서 회피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회피를 포함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전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신 지가 4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주셨던 성기숙 위원님의 의견 중에 지난번 외부인사로 추천된 분 또한 내부 출신 인사로 참여를 했다는 점과 이번 박○○ 위원의 추천은 내부 추천에 대한 규정도 있고 거기에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 4년차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부분. 그다음에 추천 심의에 들어갈 때 내부 본부장이나 팀장 출신이 지원했을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추천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충돌을 본인 스스로 회피하는 절차를 밟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시할 말씀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님께서도 긍정으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안전에 대해서 안전 부의에 전원이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의 찬성 의사로 판단하고 본 안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다는 동의와 재청을 받았습니다. 본 안전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두 번째 안전으로 제1206호 안전으로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전은 정창호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11페이지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근거는 사무처운영규정이 기본 규정으로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개정 사유는 창작지원 사업 운영 강화를 위한 본부 및 부서 조직 세분화인데요. 이번에 9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체 11인의 위원님이 계신데 공연예술 위원님들이 8인이십니다. 그래서 극장운영팀과 공연예술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8인의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소통 강화 업무를 위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3번을 보시면 예술지원본부 이원화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원총괄팀, 문학지원팀, 시각다원에

술팀, 예술인재양성팀 그리고 예술지원2본부를 만들어서 극장운영팀에 있었던 공연사업과 함께 연극무용팀과 음악전통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팀이 여기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별로 관리를 했었던, 예를 들면 공연예술팀에서는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이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대관료지원사업 등 기타 여러 가지 수탁사업을 관리했었고요. 극장운영팀에서는 공연예술창작산실이나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을 사업단위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개편 내용에 따르면 연극무용팀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면서 연극, 뮤지컬 무용 그리고 음악전통팀에서는 동일사업에 대해서 음악전통예술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기타 수탁사업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저희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예술지원1본부와 2본부가 추가로 들어가 있고 현행 대비해서 지원1본부, 2본부로 해서 연극무용팀과 음악전통팀과 교류협력팀이 각각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사 등 기타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1처 3본부 1극장 1관 1실 1센터 1원 13팀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본부가 1개 더 생기면서 연극무용팀과 음악전통팀이 들어가게 되고 교류협력팀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본부에서는 지원총괄, 문학과 시각 그리고 예술인재양성, 2본부에서는 공연, 교류, 국제교류 쪽을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붙임3의 내용은 업무분장을 보실 수 있도록 추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무처 운영규정 시행세칙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보고드릴 부분은, 18페이지에 예술지원2본부가 있습니다. 예술지원2본부는 공연예술창작산실이나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연예술창작공간지원 등에 대해서는 연극무용팀과 음악전통팀이 동일하게 다루고 총괄 역할은 연극무용팀에서 하되 각각의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사무처에서 해오지 않았던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위원님들 8인이 공연예술에 있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로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청소년공연예술은 연극무용팀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대외 평가나 예산 총괄도 연극무용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부 내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도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음악전통팀의 경우 특이한 사항으로는 아코디언작음악제를 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재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경과 전통재단에 나가는 재교부 사업에 대한 평가나 예결산 총괄 그리고 공연연습 공간조성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하는 수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여기에서 맡게 됩니다.

참고로 그 아래에 있는 문화기반본부의 문화누리팀은 추경 관련해서 예술관람료사업이나 일부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대한 복지재단 재교부 사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는 안 드렸는데 17페이지에 지원총괄팀에서는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재교부 되는 올해 신규 사업인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 부분도 맡게 된다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는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기 위원회가 공식 출범이 되고 오늘 공식적인 회의인 만큼 필요로 하는 의견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의결안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많은 준비와 검토를 거쳐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했으므로 안건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안건 의결과 6가지 보고안건에 대해서 하고 나면 비공식회의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자리를 내어주신 만큼 짧게라도 9기 위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잠시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안은 우선

올해 집행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일정이 굉장히 다급하게 있고요. 마침 8기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님들께서는 경험을 9기 위원회와 함께 해 주고 계셔서 더욱 더 긍정적인 보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견으로, 공연예술 부문이 너무 한 부서에서 담당하여 과중한 업무량도 있지만 조금 더 섬세한 집행기구로서 전문성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다소 담고요. 또 저희가 예정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이 8월 말이면 문체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서 거의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되고 9월부터는 국회 예산심의 의결로 넘어가면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대략 내년도 예산(안)의 항목이 거의 압축되는 것을 8월에서 9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점 동안 우리 9기 위원회에서 정규 회의 혹은 비정규 회의 모임을 통해서 9기 위원회가 짧은 임기 3년이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적 비전 사업. 그다음에 아르코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연간 사무처 중심의 집행내역들을 2가지 형태로, 기존의 흐름은 전문적인 것을 위원회에서 조탁만 잘 해주면 업무 역량을 발휘하고 그 시점부터는 기구 개편도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현재 편성과정으로 봐서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설되는 항목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담아내고 현장에 집행하기까지는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기구 통폐합 혹은 분류. 그래서 기구표 자체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시 안건으로 지금 당장, 전년도에 수립된 예산안이 올해는 집행을 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의견 반영으로 1개의 팀을 2개의 전문팀으로 구분한 것이라서요. 13페이지를 보시면 말 그대로 예술지원본부가 1개에서 1과 2로 나뉘진다는 것과 업무분장의 팀을 연극무용팀, 음악전통팀 그리고 교류협력팀을 예술지원2본부로 신설로 해서 분류하고 조금 더 집행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고 시행은 7월 1일로 한다는 게 오늘 의결의 팩트가 되겠습니다. 향후 9기 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현재 제가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을 조금 이따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임시 개편(안)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옥 위원 : 이후에 또 논의를 할 시간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의결할 때, 물론 개정(안)이 오랜 시간 업무를 하면서 나온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간단한 사례를 들어주시거나 이것을 바꾸면 인력을 더 늘리는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효율이 높아지는지?

문삼화 위원 :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9기 위원회 공연예술 쪽 위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했는데 궁금해요. 공연예술 위원이 많아져서 팀을 나눴는지?

이범헌 위원장 : 두 분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두 분이어서 분류되는 개념보다는 8기 위원회나 그 이전 위원회에서 조금씩 의견이 있었던,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의 일부인데요. 너무 공연 분야가 뭉뚱그려져서 1개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과 전문성 부분 그리고 효율적인 세부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과 그것을 해 내기 위해서 현재 부족한 신입 공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채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공채가 진행되는 것과 인력 보완의 부분은 있지만 이 안에서 세부적인 분류를 하고 본부가 1개 늘어나는 것이라서 본부장 T/O 1명이 올라가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의 집행 기준에서 위원회의 의견이나 지금 질의를 주신 것을 감안해서 주무부서의 답변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추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해 주세요.

(14시 50분 구문모 위원 회의 참석)

성기숙 위원 : 제가 발언을 하고 정창호 팀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419차 문화예술위원회 회의자료를 이메일로 받고 조직개편을 한다는 자료를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무처 운영규정>은 절차상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돼서 여기 안건으로 현재 올라온 것이죠? 11쪽을 보면 정관 및 관련 규정을 보면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규정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내부위원이 어떤 분이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문화예술위원회 조직개편 한다는 것을 처음 접했기 때문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유되거나 안내받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는 비상임위원이라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자기 해당 장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현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는 것인데요. 과연 문화예술위원회가 2005년에 민간자율기구로 전환될 때 자율·분권·참여의 목표가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 기구의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명의 대전환 시대이고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피부로 당면한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위원회도 1973년에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발해서 2005년에 민간자율기구로 전환이 돼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예술현장의 급속한 변화도 있고 국내외적 예술의 생존 측면에서도 순수예술 지원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가 20년 체제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국가유산청도 문화재청에서 3년 전에 국가유산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도 앞으로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당황스러움이 약간 해소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조직개편은 임시적인 조직개편으로 이해해 달라.”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그리고 7월 1일자로 개정이 된다고 해서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폭넓게 진지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9기 위원 두 분이 언급하셨는데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조직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나 직무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을 갑자기 개편한다고 해서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압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12쪽 개정(안) 4번을 보면 본부장 2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미술관에도 관장을 두고 감사실에도 실장과 각 부의 부장을 두고 기록원의 원장을 두고 예술센터에도 센터장을 두고요. 말하자면 조직의 상급자 직위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범현 위원장 :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총론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개편(안)은 업무분장만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공연예술 분야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조금 더 효율화 하자는 것에 의해서 1개 본부에서 포괄하던 것을 제2본부의 명칭으로 본부 1개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고 1개가 늘어난 본부에서 2개의 예술공연 분야에 집중하는 팀을 1개에서 2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 1개와 팀 1개가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이것은 업무의 집행효율을 위한 임시개편(안)이고요. 이 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다가 성기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총론적인 의견을 취합하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6월, 7월, 8월의 기간에는, 특히 6월과 7월에는 조금 더 공식, 비공식 혹은 임시회의 등을 통해서 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고요.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본적인 조직기구 개편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업무분장의 효율성 그리고 인력 관리의 문제 그리고 “이 기구가 비전정책까지도 수행할만한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우리 9기 위원회에서 집행되는 예산 틀을 짜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까지만 너무 강론에 집중하다 보면 9기 위원회의 총론적인 정책방향의 비전제시도 투톱으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8월과 9월을 예정으로 해서 8월부터는 가시적인 초안. 오늘 회의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 그대로 사전 서치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개정(안)에 팀에서 부로 전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 관련 부서와 외부 자문을 얻으면서 준비한 안에 대한 서치를 충분히 검토하시는 안으로 참고하시고요. 오늘 개정(안)의 팩트는 8쪽에서 보여지는 기구. 제2본부와 제2본부에서 공연예술팀에서 했던 것을 2개 팀의 공연예술로 분류한다는 것에 방점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1쪽 박스를 보시면 ‘내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규정심의위원회’ 그리고 화살표로 해서 ‘위원회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규정심의위원회는 사무처 내에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외부라고 하면 규정심의위원회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입니다. 통상보면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사무처에서 할 때도 외부의 인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정심의위원회는 여기에 있는 문화기반본부장, 예술지원본부장 등 본부장급과 사무처장 그리고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나주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력거래소의 김지연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정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의결을 거치고 오늘 확정하기 위해서 발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하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8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르별로 연극, 음악, 무용, 전통이 공연예술이고 장르별로도 특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경우는 극장의 창작산실 속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공연예술팀에서 하는 등 공연예술이라고 하더라도 특성이 있어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최근까지 하셔서요. 이런 부분을 임시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인력 대비 조직 사이즈로 보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력 대비 조직 규모라든지 서울문화재단의 인력 대비 조직에 비해서 팀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인력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팀제로 하려고 하면 이론에 따르면 2명 내지는 8명이 맞는데요. 지금 보면 팀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관리가 가능한 인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무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어서 임시적으로 하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월에 한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2027년도 사업을 공모하고 심의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사이클의 순서로 간다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논의해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장님이 오셔서 조직개편이 있으면 사람을 배치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당장 사업이나 조직이 안정돼서 가려고 하면 빠르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 가급적 빠르게 잡으신 부분이 8월이나 9월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하고요. 혹시 세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앞서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공연예술 위원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지? 이렇게 바뀌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저희 주무부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융복합 시대에 장르별 부서를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부터 다양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3가지입니다. 우선 사업별로 저희가 공연예술의 세부 장르가 진행되면서 과연 사업별 세부장르의 특수성이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부서가,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방식이 세부 장르별로 업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괄 부분이 약간 겹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은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구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통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전에 공연예술팀장을 했을 때 4명 위원님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외부와 소통하기 전에 내부의 의견

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크게 로드가 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업무 활동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통 부분, 특히 정시공모를 준비하려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소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우리 조건에 맞는 부분은 이것이 가장 차선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여기까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의견이 교류되면서 교감을 하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세부(안) 그리고 신규 대조표는 아까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8월, 9월 정도에 실행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의 자료로 활용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초기에 사무처의 전 본부별로 7기 위원회, 8기 위원회 등 위원회를 거쳐 오면서 논의되었던 많은 기구개편(안), 업무 분장의 고민을 꾸준히 해오고 쌓아 와서 9기 위원회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자는 준비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2본부와 2개 팀 분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효적 업무 보고사항이 있으면 지금 거수한 담당의 의견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 노동조합 비대위원 : 저는 노동조합 대표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건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위원장님께서 9월에 개편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1달 반 정도 이렇게 먼저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들은 약간 의문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조직개편 의견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은 서울과 나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르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의 이주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달 반 빨리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업무적으로 효율적인지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고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이 의견을 포함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임시 개선(안)으로 일부 개정(안)이라는 참고 말씀을 드리구요. 기존에 포괄적 내용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대한 자료도 1안, 2안, 3안으로 누적된 연구 자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9기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요. 지금 바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관련 임직원의 의견을 들은 만큼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8월, 9월. 그리고 그것도 시한부로 못을 박고 가는 것이 아니고 9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항목 확정이 거의 되는 게 8월 말 정도로 기준을 한다면 그 기준에 맞게 내년도에 기구개편(안).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포괄적 해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간다면 그 시점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작은 의견. 또 직원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서울에서 근무하는 팀 업무 분장 그리고 나주본부의 업무 분장. 그리고 인사 관련은 매년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 발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다만, 현재 규정 안에서만 우리 위원회가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9기 위원회의 정책비전 논의와 함께 기구 개편, 조직개편 그리고 개편한다는 것이 무슨 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고 예산 집행의 방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현실화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 부연하실 게 있으면 거수로 의견을 주시고 없으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사무처장님의 말씀처럼 내외부 위원이 참여했다면서 비상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감으로 남고요. 다만, 18쪽을 보면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데요. 그동안 예술지원 문에

기금 정시공모에서 양대 산맥이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사업이었는데요. 공연예술창작산실이 예술본부, 이것은 원래 아르코극장에서 수행하던 것인데 예술본부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문건에 표기되어 있고 창작주체가 여기에서는 사라져서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창작주체, 창작산실 지원 관련 여러 차례 팀장님께 건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이 없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운용 재교부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이지만 민간기구처럼 되어 있는데 문예위에서 재교부를 해서 여기 업무분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예전에 정창호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재교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그리고 지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협회의 사업들, 이런 것들은 2026년에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백지화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포괄적으로 이런 게 디테일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함께 저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상위 정관, 위원회 규정, 하부 지침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하는 작업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맞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했을 것이고 실무적인 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안건이 어떤 기구나 업무분장 그리고 사무처 인사규정과 연관되어지는 세밀한 부분의 포괄적인 개정(안)이 안 되고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실효적인 부분은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의 여러 방향에서 보면 재교부 항목이 적지 않은 항목이 있고, 재교부되는 총액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 거의 1,000억 대 가까운 비중이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주신 의견들처럼 이런 재교부 문제에 대한 재검토 부분. 그랬을 때는 문화예술위원회 기구의 새로운 편제 문제.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직접적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9기 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그런 기준을 전제로 하고 가시적인 타임스케줄을 8월 말 정도에 차기년도, 2027년도 예산안 편성 항목이 거의 가시화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서 효율적인 그리고 그 과정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걸 주도적인 역할과 준비를 하고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압축된 내용들을 그동안 사무처를 중심으로 각 기수 위원회별로 논의되었던 것을 집대성한 부분의 내용을 놓고 효율적으로 가려면 안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도 참고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자료가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그러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이 있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현 위원장 :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의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207호 2026년 공연 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연극, 무용, 창작오페라 분야)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세부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극장운영팀 과장 : 저는 극장운영팀 박성은입니다. 극장운영팀장인 홍승욱 팀장이 오늘 극장 기획사업 심의로 다른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무용, 창작오페라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이 선정되었고 지원결정액은 20억 8,0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에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신작 사업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공연예술 우수 신작을 발굴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단계별 제작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신청자격은 신작 창·제작 계획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연극과 뮤지컬은 단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본 공연 같은 경우에는 1억부터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의신작에 선정된 단체들은 2027년 1월에서 3월까지 저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동기획으로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창작뮤지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연장을 대관해서 진행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의신작은 지난 9월에 공모를 진행하였고요. 1차 서류, 2차 인터뷰심의를 작년에 진행해서 올해 1월 초에 결과발표를 진행했습니다. 1차, 2차 선정된 단체들이 3차 실연심의를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건은 지난 3월과 4월에 실연심의를 진행했던 단체의 결과발표 중 3개 분야의 해당 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극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아르코꿈발극장, 무용은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창작오페라 분야는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 보고 후에 결과발표는 내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신작은 전담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1차와 2차 때는 참여하지 않았던 전담심의관이 3차에는 심의에 참여하게 되고 실연심의 같은 경우 총 6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담심의제 운영은 지난해 10월에 결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1차, 2차 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필요 인원수에 대해서 후보자를 구성하였고 그중에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전담심의위원 명단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전담심의위원 명단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선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때는 저희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서류로 진행하였고, 2차 심의대상은 1.5배수 선정해서 인터뷰 심의를 각 분야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결과발표를 1월 초에 해서 단체들이 그동안 3월과 4월 실연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6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에 3개 분야인 창작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의결을 받고 결과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리 진행한 건은 창작뮤지컬 분야 같은 경우 외부 공연장을 대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미리 결과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작품의 예술성 40%,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사업계획의 공공성 10%가 있고요. 특이한 것은 일반 관객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관객평가단 점수 20%로 진행됩니다. 해당 건은 10개 문항으로 총 20점을 배정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 무용, 오페라 등 3개 분야 총 15건을 선정해서 20억 8,0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연극의 경우 5건, 무용의 경우 6건, 창작오페라 분야 4건으로 총 1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1건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의 제척은 해당이 없었고 심의 회피는 총 5건으로 연극 3건, 무용 1건, 창작오페라 1건입니다. 행정 결격과 신청포기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 이후에 내일 오후 3시에 심의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간 저희가 추진 경과나 심의위원 명단, 총평, 지원대상 선정내역 등은 저희 누리집에 게시된 바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심의위원 개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도록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단체 중에 점수 공개에 대해서 동의한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개별 심의위원의 점수와 관객평가단 평점까지 해서 전체 점수를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 평가 점수가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결과발표 15일 이내에 옴부즈만 민원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고요. 6월 중순부터는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하고 사업선정 단체의 모니터링 평가는 공연이 진행되는 2027년 1월부터 3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결정 세부 내역과 평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본 안전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단순한 질문인데요. 우선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에 대해서 무용의 현장예술인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르코극장과 공연장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또 창작산실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지원상한액을 무용같은 경우 거의 다 1억으로 되어 있고 7,000만 원과 8,00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요. 원래 가이드라인으로 1억이 주어졌나요? 다른 분야는 2억이나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성은 극장운영팀 과장 : 지원액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최대 지원액이 얼마인지 사업공고문 안에 담겨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용 같은 경우 최대 1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공고가 된 바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래서 1억 신청이 돼서 7,000만 원과 8,000만 원이 결정된 것이네요?

박성은 극장운영팀 과장 : 맞습니다. 모두 1억을 신청하신 것은 아니고요. 단체별로 조금 작게 신청하신 곳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신청액보다는 많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창작하고 오페라 분야는 2억 5,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장르의 특성이 반영돼서 상한 기준이 된 것이죠?

박성은 극장운영팀 과장 : 예,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의견을 주신 것처럼 답변에 의해서 진행하고 규모나 해당 분야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공모의 요건이 8기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모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현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현 위원장 : 다음 안건은 제1208호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극장운영팀 과장 :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지원심의 결과 건으로 39페이지입니다.

총 18건을 선정하였고 지원결정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대본공모 같은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0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본공모 사업은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에 우수 작품 발굴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분야는 연극,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3개 분야에 해당되고요. 신청자격은 극작가 및 작곡가 개인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사업대상은 순수 창작물로, 공연화가 가능한 완성된 대본이어야만 하고요. 공연시간은 60분 이상 분량의 미발표된 작품에 한해서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해당사업은 블라인드 심의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연극의 경우 8개 작품, 작품별 1,000만 원이고 창작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5개 작품인데 극작가와 작곡가 매칭 참여로 지원이 가능하고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창작오페라 분야는 5개 작품으로 대본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 경과를 지난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은 작년 12월에 의결을 받은 바 있고 신청은 올해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31일간 접수를 받았습니

다. 4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위원회 의결 이후 내일 결과발표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분야별로 총 16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수를 고려해서 6인의 심의위원인데 각각 2인씩 예심 2개 그룹으로 운영하였고요. 창작뮤지컬과 창작오페라의 경우에는 세부 분야를 고려해서 각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방식은 심의위원 후보자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 극작가가 대부분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심의위원 풀 외에 전문가를 일부 모셔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4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 비공개로 한 블라인드 심의로 진행하였고요. 연극의 경우 예심 2개의 그룹으로 각각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에 통합심의로 진행하였고요. 창작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예심과 본심으로 진행한 바 있고, 창작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수를 고려해서 통합심의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본심 같은 경우에는 5월 13일부터 15일에 진행해서 저희가 심의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접수 결과 총 392건 중에 결격 사항을 제외한 355건을 예심과 본심으로 진행하였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8건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예산 배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선정 건수가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연극 같은 경우 8건 선정에 8,000만 원이고요. 창작뮤지컬은 5건에 작곡가와 극작가 매칭지원이기 때문에 1억 원을 배정하였고, 오페라는 5건에 5,000만 원 예산 배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18건에 2억 3,000만 원 포상금으로 결정하였고요. 해당 사업은 지역균형제도 미적용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해서 연극 2건, 창작뮤지컬 2건, 창작오페라 1건에 대한 예비지원자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제척은 해당이 없고 회피 건으로 연극 1건, 창작뮤지컬 2건으로 총 3건의 회피가 있습니다. 내용은 회의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결격은 총 37건으로 필수서류 미제출이거나 기발표 또는 기공개된 작품 등으로 행정결격이 발생하였고요. 연극은 19건, 창작뮤지컬은 16건, 창작오페라는 2건이 해당됩니다. 지원사업 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오늘 의결 이후 내일 결과발표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지원옴부즈만 민원신청을 결과발표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고 6월 중에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극 분야 같은 경우 선정된 대본에 한해서 낭독공연을 통한 우수대본공연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8월에 아르코예술극장의 기획프로그램으로 여름 낭독 시즌 공연과 연계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창작오페라 분야의 경우에는 202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실연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대본공모 지원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면 바로 의견을 받겠습니다.

서영수 위원 :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줌으로도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현 위원장 : 의견을 주십시오.

서영수 위원 : 안녕하세요, 서영수입니다.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공연예술창작산실의 공연제작이나 대본공모 결과를 보니까 지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품의 수월성이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지역이 왜 이렇게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김대현 위원 : 저도 이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면 답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공통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 저는 45페이지 선정률이 좀 궁금한데요. 선정률을 보면 연극 같은 경우 2.9% 선정이 되고 창작뮤지컬은 6%, 창작오페라는 16%입니다. 사실 다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연극 같은 경우 지원건수에 비해서 선정건수가 너무 적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 조정이나 지원건수 대비해서 비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중요한 말씀이라서 바로 문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한 내용에 팩트가 있을 테니까 주무부서의 답변을 듣고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차후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압축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 극장운영팀 과장 : 지역의 건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지원된 건수가 있었으나 심의에 있어서 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의신작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건수가 있었고 1차 서류와 2차 인터뷰 심의에도 지역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지역의 신청건수 대비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범현 위원장 : 지금 현재 주무부서의 답변 속에서 9기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포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역활성화, 저희의 전반적인 정책의 기초가 지역문화 활성화 문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는 지역인구소멸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 아르코가 나누가 내려간 것도 지금 의견을 주신 내용들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지역할 당제 형태의 %를 일부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질적 퀄리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항들을 조금 더 보완적으로 하고 현재의 집행 심의가 결정된 사항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고 다른 방식의 보완적 규정을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거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영욱 위원 : 관련해서 짧은 질문입니다. 대본 같은 경우 블라인드 심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블라인드에서 지역까지 가려져 있습니까?

박성은 극장운영팀 과장 : 예.

임영욱 위원 : 그렇다면 사실 지역을 의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극 인구가 당연히 많을 거라는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연극은 대본만 지원하는 것이고 뮤지컬은 음악과 같이 지원을 해야 하니까 지원률이 아마 낮을 것 같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오페라의 경우 워낙 작곡가가 희소하니까 대본만 하는데도 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할당 같은 경우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에도 재단들이 있으니까 창작지원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수월성이나 다양성 등에 충실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의견이 있습니까?

서영수 위원 : 추가로 질문이 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이나 대본공모나 이쪽 심사위원들은 수도권과 지역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왕치선 위원 : 그 담당직원보다 차라리 그 부분은 경험을 한번 해 봤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과하게 복잡할 정도로 공정성을 추구하더라고요. 위원에게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만 저희의 추천과 사무처의 추천을 모아서 그것으로 뽑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심사위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누구의 영향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심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지방출신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비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연령까지 맞춰야 해서 심사위원의 연령을 배분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정을 거쳐서 심사위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거의 5명 중에 최소 1명은 지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서영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심사 때 심사위원들 중에 지방에 계신 분이 몇 분 정도가 되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쭙보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장 : 사실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구분 없이, 규정에 따르고 규정에 따른 것을 랜덤으로 선정되니까 지역에 대한 것 혹은 출신에 대한 선입관을 주무부서에서도 잘 모를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 위원님이 의견으로 주신 내용은 회의 이후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회의 42쪽을 보시면 거기에 심의위원 명단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밑의 바를 보시면 신진, 40대 이하, 여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것은 아까 왕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는 부분까지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지역을 배려하는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균형지원제도라고 해서 정기 공모를 할 때 이 부분을 적용하는 사업도 있고요. 대부분 적용하지만 수월성 부분을 굳이 봐야 하는 부분은, 창작산실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았고요. 아까처럼 블라인드로 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향후 9기 위원님들께서 17개 시도의 문화재단과도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회 사업도 하시면서 새롭게 한번 살펴보시면 새롭게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삼화 위원 : 서영수 위원님, 오늘 회의자료에 보면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심의위원과 대본공모 심의위원 옆에 지역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이고 소수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렇게 표로 확인해 보시고요. 평균적인 내용도 필요하시면 주무부서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미진한 의견이 있거나 보완적 제안 의견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지역, 연령은 사실 전담심의회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거의 많이 준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정시공모가 아니라 계기성 기획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무용계에서 그동안 왜 대본공모사업이 연극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무용도 전통발레라는 것은 문학성에 기반한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력하게 이것을 요청드려서 담당 팀장님과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2번 정도 심층적인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는데 다른 분야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무용이 여기에서 누락이 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무용이 일회성이고 비언어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 담론과 축적된 문자의 유

산은 매우 중요해서 앞으로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연극이 277건, 뮤지컬 84건, 오페라가 31건인데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여기에 도전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반갑게 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사실 굳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할 필요가 없죠. 문학성을 보는 심사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모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지 선정된 게 ‘낭독공연’이나 ‘올해의 신작’으로 머물지 말고 본격적인 창작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원과 연계해서 무대 위에서 꽃을 피우는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고 그 작품이 유통까지 된다고 하면 문예위에서 지원하는 대본공모사업이 굉장히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처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새롭게 세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으로 의견 청취를 하셨는데 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영수 위원 : 어쨌든 최근 3년에 걸쳐서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작품에 선정된 지역의 비율을 살펴봐 주시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풀 자체가, 소위 말하는 표본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선정된 작품이 수도권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했으면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회의록 정리 후에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요. 필요로 하신 부분의 자료는 주무부서에서 내용이 조사되는 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의견으로 주신 내용들을 취합해서 9기 위원회가 할 일을 의논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계속 나가는 게 저희 9기 위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서영수 위원님이 심사위원 풀을 확장하자는 것에 대해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장르별로 심의위원 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공모나 계기성 사업이나 심사위원은 그 풀 안에서 모셔야 되는 전제가 있어서요. 앞으로 심의위원 풀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심의위원 풀도 임기가 교체 시기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9기 위원회 각 장르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논하시고요. 혹은 의견을 펼치시면서 보완하고요. 아마 올해 중으로 모든 심의위원 풀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앞으로 진행할 일들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2,000명 이상 수준의 풀에서 600명 정도 심의풀이 나와 있고요. 임기가 종료된 분들의 공석이 많아서요. 그래서 우리 9기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해야 되니까 방금 의견 주신 것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실무 관련 부서에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견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했고요.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의를 얻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본 안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이것으로 의결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다음은 보고 안건입니다. 이 4가지 의결안건을 처리하면서 9기 신임 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고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회의 문화로 9기 위원회의 발전. 또 그것에 근본적인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발전이라서 궁극적 목표는 좋은 지원을 해서 현장 예술가와 단체들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무궁무진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아까 유통 문제까지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관련한 것. 그리고 인큐베이팅이 여기로부터 이루어져서 각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훌륭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점검된 분을 보니까 아르코의 이런 과정에서 지원을 받아 성장한 작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기능의 역할이 있고 순기능의 역할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너무 빛이 안 난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빛나게 해 줘야 할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칭찬하고 격려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9기 위원회가 그동안 8기 위원회까지 온 업적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키고 가감을 하고 현 정부의 문화예술, K-문화강국과 K-이니셔티브를 위한 모든 실행 전초기지가 아르코다. 그렇다면 아르코의 새로운 변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릇 만들기를 9기 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게 제 소신과 정책적 방향입니다. 그래서 투톱으로 일은 일대로 잘 하고 기존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조탁을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섭하지 않고 일을 소신껏 하고 잘못된 것은 엄격하게 묻되 잘한 것은 칭찬을 해 주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9기 위원회에서 문화예술 지원콘텐츠의 모든 마스트플랜을 짜야겠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짧지만 그동안 8기까지 이어온 그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면 짧고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골든타임이 필요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정부가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은 확장시킬 길이 요원해진다 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를 지금 또 이 자리에서 하고 있고 20년 후에 오늘 고민한 걸 또 그 위원회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소신과 그런 사명감을 우리 9기 위원회가 가져왔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선임해 주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개별적 활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고안건 6가지를 마무리 짓고 난 이후 따로 보고를 드리고 9기 위원회의 플랜 짜기에 대한 첫 태스크포스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짧고 명료하게 하고 제 그림을 소개해 드리고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필요한 실무 전문가와 해당 지역, 해당 분야의 모든 것을 최소화 시킨 TF추진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논의는 6가지 보고사항 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잠깐만요. 그냥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건에 대해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일단 빨리 안건을 의결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 토론할 시간이 있겠죠?

이범헌 위원장 : 맞습니다.

문삼화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안건 위주로 먼저 가고 참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범헌 위원장 :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사실 사무처에서는 한두 번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몇 년간 인큐베이팅한 것도 많습니다. 아까 논의가 되었던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 문제까지 포함하면요. 그래서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안건은 바로 의결을 해 주시되 앞으로 충분한 의논의 절차는 기타 토의사항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는 기타 토의사항에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

고요. 우리는 위원회 안건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팩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한 뒤에 우리의 비전 토론을, 그리고 그런 안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참아주신 것을 기타 토의에서 충분히 논의 후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시켜서 갈 수 있고요. 맨날 논의만 하고 직접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제로 우리 9기 위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대현 위원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범헌 위원장 : 예. 의견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결안건은 책임을 지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 부분에서는 오늘같이 조직개편처럼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연구자료, 이전에 연구가 많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첨부하는 방식으로라도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와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 준비를 위해서 9기 위원회 첫 회의 이후부터 그런 자료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고요. 회의 규정에 의한 회의자료 이전에 더 숙지하실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사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브레이크타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브레이크타임을 가져 주시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로 이루어지지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거라서 회의 준비도 잘해주셔야 하겠지만 사전자료 제공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도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자료제공에 힘을 더 써 주시고요. 여기에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5. 보 고 사 항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7년 베니스비엔날레 제20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결과(수정)에 대해서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 : 69페이지 2027년 베니스비엔날레 제20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결과에 대해서 전차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재보고를 드리는 건입니다. 앞서 먼저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가장 오래된 국제 미술 및 건축비엔날레 행사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탈리아 베니스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고, 격년도로 개최되고 있는 미술전과 건축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베니스비엔날레는 건축전시로 이루어지고요. 제20회 건축전입니다. 전시의 개요는 69페이지 1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7년 5월부터 11월까지 베니스 시에서 개최가 되고 전체 예술감독은 왕○와 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주에 송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직전에 전시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시주제는 ‘건축학이 실제 현실 속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들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경과가 정리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각 전시별로 먼저 운영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운영자문위에서 예술감독 선정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예술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된 선정위원회 풀이 선정위원회가 돼서 공모 신청이 들어온 예술감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최종 감독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 경과대로 2025년 11월부터 운영자문위원회 그리고 공모 접수가 진행되었고요. 위원회 회의에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을 포함한 아르크미술관 사업계획이 올해 1월에 의결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전체 예술감독 공모는 총 20건이 접수되어 기존 대비 4배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접수된 20건의 신청 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6년 3월 11일에 1차 선정 회의를 개최해서 서류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뷰 심사 대상자 5팀을 선정하였고요. 이 5개 팀에 대해서 3월 31일 2차 선정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예술감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 24일 전체회의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정된 예술감독은 공동 예술감독으로 이○○, 이□□ 두 분이었고요. 전시명은 ‘사라지는 도시, 누적하는 건축’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 소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을 위기가 아닌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을 논하고 있는 전시기획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선정된 공동 예술감독 중에 한 분인 이□□님은 대구광역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재직기관에서 겸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겸직 허가가 불가 되면서 공동 예술감독이 참여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 때문에 선정위원회의 이○○ 1인으로 예술감독 변경이 가능한지? 혹은 심의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면 의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선정위원들과는 유선으로 모두 확인하고 서면 의결을 진행하였고요. 전시기획(안) 자체의 변동이 없고 단독 감독으로도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이□□에서 이□□님은 포기를 하시고 이○○ 단독 감독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제안을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의 추진일정을 보시면 지난주에 드린 안이었는데 그 사이 위원회의 일정이 변동되면서 위원회 보고 날짜와 최종 배포일자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고 나면 이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발표와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관련 부서의 보고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면 바로 의견을 접수하겠습니다. 기 진행된 내용이라서 특별히 따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요. 부연할 부분은 짚수 연도에는 미술, 홀수 연도는 건축 부문의 비엔날레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가 홀수 해라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2인 공동 예술감독 체제에서 1인이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인으로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두 번째 보고안건으로 2026년 에이프캠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7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에이프캠프 운영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에이프캠프가 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본 캠프 내용을 봐주시면 역량 있는 국내외 청년 예술가, 기획자, 기술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서 3박 4일간 예술-기술 협업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캠프 형태의 프로그램을 에이프캠프라고 지칭하고 2022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가 5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 총예산은 15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본 캠프와 연계행사 그리고 국제컨퍼런스, 청년 포럼, 후속지원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80페이지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행사를 기존에는 국제컨퍼런스와 VIP 리셉션으로 추진을 했다면 2026년에는 국제컨퍼런스와 청년 포럼 그리고 전체 참여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본캠프가 원래는 100명에 2박 3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20명에 3박 4일간 진행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상의 문제로 캠프까지만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해외 리서치트립으로 진행되던 참가자 리워드가 이번엔 캠프에서 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작품화 또는 무대화할 수 있는 후속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넥트 프로그램(구 리서치트립)을 원래대로 진행하고 캠프 미션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지원을 13팀 그리고 에이프캠프 참여자 대상의 후속지원을 4팀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공유회 정도로 진행하던 성과확산 프로그램을 공개형 프로젝트 공유회 그리고 전시 및 쇼케이스로 전환해서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참가자 모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협력기관으로는 국내 예술-기술 융합사업을 하는 주요 재단들과 협력체계를 맺고 있고요. 해외에는 여러 가지 예술-기술 융합 스튜디오들, 기관들과 해외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81페이지의 사업 주요 일정으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2일에 금요일에 아르코예술극장에서 2시부터 아르코 예술기술융합 국제 컨퍼런스라는 에이프캠프 연계 행사가 진행되고 이것을 시작으로 13일부터 16일에 3박 4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본 캠프가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12월과 내년 1월에 프로젝트 공유회 전시 및 쇼케이스로 후속 행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6월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사업 추진체계를 보시면 예술인재양성팀에서 주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가 커서 중앙조달을 통해 결정된 업체가 운영 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진 일정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사업 세부 내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의 예

술-기술 융합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렉터그룹으로 5인을 멘토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해외에서도 캐나다의 SAT, 오스트리아의 Ars electronica, 미국의 Burning Man Project 그리고 싱가포르예술위원회에서 멘토들이 섭외돼서 예술-기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있어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현장성과 당사자성 강화를 위한 기 에이프캠프 참여자들의 의견수렴 체계가 구축돼서 에이프라운드나 청년포럼, 기존 에이프캠프 참여자들이 이런 캠프 및 연계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주빈국 제도를 신설해서 싱가포르가 2026년도에 저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캠프 10명을, 120명 중에 80명이 국내 캠퍼, 40명이 외국인 캠퍼로 이루어지는데 이쪽에서 10명의 포션을 싱가포르에 줍니다. 그래서 항공료 및 기술 멘토 사례비는 싱가포르예술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이 친구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숙식 제공 그리고 10명을 저희 캠프에 참가하게 하는 혜택. 그리고 연사 추천 및 섭외 협조를 기관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제고는 앞에서 드린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각각 진행되는 행사와 부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의 후속지원 및 성과확산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 캠프 미션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글로벌 커넥트 프로그램, 레지던시 지원, 알럼나이 지원 등이 있습니다.

90페이지 예산계획까지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0분 차지언 위원 참석)

이범현 위원장 :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저도 작년에 이것을 처음 봤고 올해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신 분이 1,000여 명이 되고 예산이 15억이니깐 1인당 150만 원씩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액수를 1인에게 쓴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데요. 그렇다면 예술인재양성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얻고자 하는 성과가 뭔지?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지표상 나타나는 게 뭔지? 실은 작년에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도 되게 많고 하여튼 보기는 화려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성과로 애당초 처음 만들었을 때 예술-기술 융합 사업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청년 예술가를 담당하는 지원하는 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 예술가들이 기술 융합 사업에 진입할 때 기술전문가들과의 소통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예술-기술 전문가들과 청년 예술가와의 네트워킹 장을 만들고자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5억 9,000만 원까지 예산이 늘어나서 100명 규모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 10억이 늘어난 것은 후속지원에 대한, 어쨌든 사업이 잘 이끌어져서 예술-기술 융합에 대한 트렌드에 맞는다고 생각하신 건지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성과로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 후속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표적인 창작물은 없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맺어진 창작그룹들, 창작컬렉티브들이 13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각각 예술위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이나 제로원페스티벌 등 예술-기술 융합 사업들에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 출신들이 100명, 지금 저희 단체 카톡방에 48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에이프캠프를 시작으로 예술-기술 융합에서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본인들이 협업파트너도 물색을 하는 등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하게 구축되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

적인 창작물도 산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창작물이 유통되는 효과까지 성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치선 위원 : 그렇다면 수혜단체 혹은 수혜 개인들이 수혜를 받는 필요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왕치선 위원 : 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앞으로는 뭔가가 나올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앞으로 지원이 얼마나 길게 가야 한다. 내지는 이들이 어느 정도를 달성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게 있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일단 여태까지 말씀드린 13팀의 콜렉티브는 따로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본인들이 협업 파트너를 여기에서 구해서 다른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맺어진 팀들은 올해 처음 저희가 그런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4팀 정도를 만들 생각인데요. 어느 시점이라고 국한 시켜서 어느 정도가 되면 콜렉티브가 만들어진다고 관찰은 하지 않았지만 에이프캠프가 5기수인데요. 본인들끼리 캠프에서 맞춰서 창작그룹을 이어나가는, 또 지금 현재 에이프캠프 참가자 대상으로 본인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창작프로젝트를 내 보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구성해서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는지? 창작프로젝트를 할 의지가 있는지가 측정될 것 같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을 들으셨고 이어서 짧게 해 주시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예술인재양성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예술-기술 융합 인재 교육입니다. 그러면 키워드가 기술, 융합, 인재, 교육입니다. 순수예술 기구로서 예술위원회의 기관 정체성에 과연 맞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15억에 120명을 해외 관련자를 초빙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문화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이 예술지원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서 오려고 인적 네트워크를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비롯해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국제음악, 왕치선 위원님이 관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전임 위원장 시절에 국제음악콩쿠르 컨퍼런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비성, 기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소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지금 주신 의견은 잘 접수를 하고요. 또 다른 의견을 주십시오.

구문모 위원 : 제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봤던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융합프로젝트인데 성격은 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이거든요. 주로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우리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은, 그쪽은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화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예술 쪽에서 R&D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좋게 말하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수준,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쪽 분야의 시드를 만드는, 씨앗을 만드는 형태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술이 각각 장르별로 예술이 있지만 기술을 크게 보면 예술의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도구들이 발달되니까요. 그래서 예술이 확장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하고 예술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알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융합을 통해서 새

로운 창작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또 이것이 어떤 큰 사업이 돼서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예술이 탄생할 수 있느냐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좋게 봤습니다.

이 회의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장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후속지원으로 우리가 큰 기관이니까 개인이 해외로 진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장을 한 프로그램, 이번 사업이 해외진출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보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 말고 다른 장르도 비슷해요.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평가하면 “성과 지표를 뭘로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사실 상당히 괴로워요. 그런데 왕우리 팀장님께서 네트워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킹도 성과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킹의 협업 비율이라든지 목표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서 작년에는 5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10가지를 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표를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애매모호한 것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후속지원으로, 사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 쪽에서도 예술 장르를 후원하거든요. 그런 것에 수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결과물이 될 수가 있고요. 해외 진출을 통해서 어떤 기관과 다시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사실 결과물이거든요.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에서 K-아트로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예경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년도 혹은 준비하는 과정을 짚고 올해는 예산 비중이 조금 더 커졌다는 뜻에서 의견에 집중할 수 있고요.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차기 회의록을 접수할 때 더 검토하면서 세부 시행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구문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처럼 네트워킹과 그것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확산시키는 과정. 결과적으로 지원은 했는데 실체가 어떠한 피드백은 대단히 중요한 아르코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동안은 정말 우선 지원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원을 하는 방식에서부터 지원한 사업이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과정.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다시 선택과 집중으로 가고 혹은 장르를 폐지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위원회에서 많은 조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은 여기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8기에는 문학 위원이 없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에이프캠프를 보니까 정체성 문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장르에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디렉터나 멘토단을 보게 되면 시각이나 공연 또는 전통, 음악 쪽이 다 있는데 문학 쪽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문학 현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잘 알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장르 제한이 있는지? 장르 제한이 없다면 문학이나 참여가 저조한 장르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혹시 해당 주무부서 팀장님은 그것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팩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장르의 제한은 없고요. 일단 선발과정에서 참여자 공모하기는 하지만 어떤 지원심의를 하는 심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단계에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는 편

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학 장르 참여자가 저조한 경우 복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각, 공연 쪽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확실히 시각이 더 많고요. 그런데 참여가 저조한 장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예. 아마 심의위원이나 멘토단에 그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면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향후 저희들의 방향이 정책지원 사업의 사업 장르별로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거나 사전 검토할 수 있거나 사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주무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러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위원회의 정체성이니까요. 담아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오전에도 임영옥 위원님과 문삼화 위원님은 공연, 극장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르 분야라서 두 분은 극장부문 담당 팀장과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보고도 받고 두 분 위원님을 위한 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9기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하면 그렇게 사전협의를 해서 해당 분야 위원님들에게만 사업 보고를 하는 기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론화 시간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게 회의에서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삼화 위원 : 오늘 실제로 관계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너무 유익했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앞으로 항상 이렇게 진행돼서 불특정하지만 늘 유익적으로 해당 분야에 있는 분들은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과 조금 더 밀접한 소통을 해 주시길 제가 특별히 사무처에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회의가 훨씬 더 생산적이고 그러한 결과가 조금 더 빨라지고요. 사실 문체부나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위원회만 가면 전부 지체되고 실행이 늦다. 결과가 늦다.”라는 게 지적사항 중 하나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로 전환된 이유가 그러니까요. 문예진흥원 독임제에서 위원회 제도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다소 이상적인 플랜이지만 위원회 제도의 정체성이 그런 보완이 있기 때문에 장르별 사전보고 혹은 사후보고라는 것이 위원회에서 다 못 다루는 부분을 조금은 보완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 취지를 사무처는 꼭 실행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알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문삼화 위원님이 유익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문삼화 위원 : 위원장님이 다르시잖아요.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예술본부도 2개로 늘어나고 직무 범주도 달라져서요. 저는 구(舊) 위원이기는 한데요. 구 장르위원한테도 압축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기술 융합’ 부분은 향후 존치를 해 간다고 하면 저는 사무처에서 조금 보완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예종 그리고 요즘 카이스트도 AI문화기술대학원을 신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인데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특성화된 성과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외부 것들의 자료를 모아서 리서치를 하고 분석해서 우리만의 차별화, 특성화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처에서 조금 더 고민과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중요한 말씀이고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중요 사안으로 참고해 놓으시고요.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사항입니다. 각 해당 장르별 위원님들께 해당 사업 장르의 본부, 팀별로 사전과 사후 업무보고는 이 회의를 전후해서 항상 하되 사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주시고요. 기왕에 준비하고 이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전문적인 준비들을 하고 시행하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고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픈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보이니까 꼭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안건 접수에 대한 보고 내용 접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현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현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입니다. [추경]2026년 예술산업 금융 지원(용자) 사업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님의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술산업 금융 지원(용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이고요.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듯이 저희가 기관 내에서 통칭 재교부사업이라고 부르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문체부 주도로 기획이 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 문예기금에 편성은 되었지만 저희가 사업운영이나 기획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교부 결정까지 내려지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예술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 등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 교부된 사업들이 있는데요. 본 사업도 재교부 사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일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교부되었던 사업들은 내년에 일반회계로 문예기금에서 빠져나가는 사업들이 일부 있지만 본 사업은 내년에도 문예기금에 편성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당초 2026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었던 금액은 용자금만 200억 원이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안에서 300억 원이 증액돼서 현재 5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비는 현재 일반회계에 약 6억 원가량 편성되어 있고요. 운영비 또한 내년에는 문예기금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예술분야 사업자 대상 대리 대출 방식을 통해서 저리 정책 용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은 국내 예술 분야 사업자로 사업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용자 대상은 지금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시설자금은 시설의 신·증축 그리고 설비의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이고요. 운전자금이라고 하면 사업자의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인

데요. 인건비, 마케팅비, 임차료, 저작권료 같은 기타 제경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 융자대상 구분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등의 구분에 따라서 한도액이 상이합니다.

지금 사업진행 경과를 당초 200억 원에서 100억 원 1차 교부는 완료된 상태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1차 공모까지 완료가 돼서 현재 금융기관에서 융자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2차 공모 진행 중으로 2026년 5월 29일까지 공모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93페이지로 넘어가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의 추진체계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실제 문예기금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교부하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융자 추천에 관련된 심의가 완료된 후에 금융기관 대상으로 융자추천서를 전달하게 되고요. 금융기관에서 2차적으로 해당 대출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담보부에 대해서 담보부 적격 심사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1차적으로 부동산 그리고 보증, 신용까지 현재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4월 말에 발표된 1차 공모 결과 발표 이후에 2개월 내에 융자신청을 해야되고 현재 예정으로는 신청 후 3주 이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의 특이사항은 융자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실제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환을 하지 않았을 때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을 때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되었을 경우 실제 채권에 대한 추심 등 회수 절차는 은행이 진행하고 원금과 이자는 무조건 금융기관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현재 미상환 금액이 발생해도 문예기금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융자금이지만 현재 선정된 단체는 내년도 1월까지 해당 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보조사업처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2026년도 내에 받은 융자금은 반드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1차 융자 공모 시행 결과는 전체 41건이 선정되었고 지금 해당 세부 분야를 보시면 시각예술 분야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공연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분야 세부내역을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뮤지컬 분야가 4건, 연극 분야 4건 그리고 음악 분야 3건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검토와 융자추천심의를 완료가 되었지만 해당 취급 은행의 심사 과정에서 담보 여력에 대해서 확인 후에 신용도나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에 예경에서 1차적으로 정한 한도 금액이나 대출 불가까지 해당 대출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중앙에 지원대상에서 민간예술시설업체와 예술서비스업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간예술시설업체는 지원대상 예시에 보시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문학관 등으로 예시를 들고 있고 어떠한 문화시설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유무에 따라서 민간예술시설업체로 구분이 됩니다. 그 외에 기타 창·제작, 기획, 유통, 교육, 마케팅,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예술서비스업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공모 심사결과에서는 대부분 선정된 사업자들이 예술서비스업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중앙에 융자 조건을 보시면 융자금리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준금리 공공자금 관리자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라는 것은 분기별로 기획예산처에서 고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문체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융자사업들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 예술단체들은 중소기업 등 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되어 있는 3.18% 대출금리보다 더 저리로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편성될 때부터 조기 집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달 내에 집행 잔여예산이 400억 원이 일괄로 전체 교부할 예산이고요. 지금 예경 입장에서도 아직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인지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허들이 높다고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광주나 부산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를 진행하시고 홍보를 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삼화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재교부가 뭔지 개념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인력도 부족하고 일도 많고 바빠서 죽겠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범헌 위원장 :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문삼화 위원 : 재교부가 뭔가요?

이범헌 위원장 : 업무적인 재교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사실 재교부라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문체부 주도하에 편성된 사업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말하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업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관이 아니라 예경,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복지재단 그리고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용수지원센터나 실제 문체부 주도하에 예산이 편성돼서 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성된 적도 있고 관광기금으로 편성된 적도 있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 시점 문예기금에 다 편성되어 있고요. 역사와 추진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문예기금에서 빼거나 지원결정을 현재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문삼화 위원 : 그러니까 왜 거쳐서 가야 합니까?

송시경 사무처장 :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8기 위원회 때도 한번 보고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기금에서 빼고 예산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는 하지만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의견을 주셨는데 향후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위원회가 사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집행기구로서 여러 현장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문체부의 정책적 예산편성과 국정과제로 실행하는 항목들 중에서 문화예술 항목들이 일부 지정되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그것이 문화예술위원회를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재교부돼서 집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처 간 예산집행의 항목 문제도 있지만 방식 문제도 있고 우리 위원회가 그것까지 다 소화를 하려면 문체부에서 요구되는 속도감이나 성과 과정 등이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우리 위원회 기구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속전속결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구가 항목으로는 기타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의 말씀에서 그릇 키우기가 필요하다는 범주에 이것도 좀 들어갑니다. 재교부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되는 거라면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예술인복지재단은 직접 관련된 항목들이 많습니다. 재교부 항목도 많고요. 요즘은 지역문화진흥원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있고 공예디자인진흥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골고루 아르코에서 재교부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많은 항목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자면 뭔가 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 9기 위원회에서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 때마다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구 통폐합의 공공기관 개혁모델에 다소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되지 않겠느냐는 소신 같은 것. 그리고 모범사례가 안 되더라도 비전발전을 위한 준비사례로 기구 통폐합에 대한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다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 있다면 이참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우리 본부가 나주로 가 있습니다. 나주로 가 있고 나주 본부의 역할론이 중요하고요. 벌써 12년차에 들어서 있고요. 거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웃에 마주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문화예술 두 축의 기구가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지역문화예술발전 혹은 지역의 통합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조직 내부에 더 역량을 발휘하고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이 자원들이 앞으로 가열차게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서도 스태파이스탬의 원론적 관념의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진취적으로 본다면 지역문화예술 기반과 지역발전, 지역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문제, 수도권에 진입하는 문제, 고령화 문제 등 모든 삶의 기초적인 시금석이 문화예술이다. 그렇다면 아르코가 내려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아르코 나주 본부는 사무처의 본부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것을 잘 키워나가되 지금 우리에게 재교부 기관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술기록원, 예술인력개발원 등 여러 시스템. 여기에 아르코대극장, 아르코미술관 이런 시스템은 고유 시스템이라 여기에서 더 잘 빛나게 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기구 통폐합 문제나 효율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서 전남광주 기반 새로운 아르코 빌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원년에 들어가고, 예측가능한 상태에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아르코가 조금 더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사전에 말씀드렸던 비공식 또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새로운 기구로서 아르코빌리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오프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을 그냥 나주 본부를 어떤 식으로 살릴 수 있는냐에 대안은 사무처 역할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관련 유관기관 혹은 아르코 기관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거점을 다시 조성하고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짜는 과정을 1차적으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MOU체결을 통해서 시도하려는 게 저의 1차적 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한 행정 지자체에 이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도 해남군청의 군수, 지금 그쪽 지역은 대부분 연임을 나가는 후보님들이 대부분 현직에 계시다가 연임으로 나가고 계시니까 부 군수, 부 시장, 부 도지사들이 대행을 하고 계신 체제이지만 사전 논의를 위해서 직접 방문을 필요로 하는 곳을, 전남광주특별시 준비 K-컬처 미래비전 포럼에도 직접 참석해서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그림으로써 아르코 주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문화수도 프로젝트로 가는데 그 문화수도 프로젝트에 주체적 준비를 아르코가 해야 되겠다는 것과 해당 지자체와 MOU협약 관계를 통해서 그 특성도 살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아르코 정체성도 살리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 회의가 끝나면 짧고 명료하게 그런 구상 보고를 드리고요. 일부는 위임을 받고 일부는 위원님들과 출발부터 마무리를 할 때까지 중심축은 위원회에서 그리고 소위원회처럼 그것의 집행과 추진준비단은 TF단에서 하는 구조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구의 통폐합 문제, 그리고 예산 짜기의 문제,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문제를 통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부분으로라도 해결을 한다면 그래도 실행하고 액션이 되겠다. 그런데 공론화만 하면 10년, 20년 뒤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소신 있게 가는 것. 그다음에는 지역 거점을 저렇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가서 지역에도 기여를 못 하고 본부에는 주말마다 올라온다고 대통령은 차량 지원도 차단하고요. 6월부터는 차단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구조로 엇박자가 된다는 말이죠. 취지는 좋은데 실행에는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지역은 “너희들이 내려와서 뭘 했냐?” 이런 추세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일종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16개가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다른 곳에는 3~4개씩 혹은 많아야 6개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지역 공론화를 통해서 한 군데 나주로 한 것은 시너지를 만들고 뭔가

큰 장점이 있을 것인데 못 했으니까 아르코가 중심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당장은 콘텐츠진흥원과도 협약적, 협력적 MOU를 체결하면서 가고 해당 지자체, 해남도 어제 부군수님을 만나 보니까 준비된 것을 보니 나름대로 현재 진행형, 완성형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초기 위원회에서는 조금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이런 보고안건 자료도 요약 없이 일부러다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그냥 보고안건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보고안건은 사전에 자료를 드리면 현장에서 설명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목만 대면 서치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처리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이 내용의 회의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요. 이번 안건을 처리해도 3개가 남아서 현안 보고를 짧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본부장 :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보완해 주세요.

임주연 기획조정본부장 : 문삼화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과 다음 보고안건도 연결이 된 부분이라서요. 재교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문예진흥법 제18조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에는 후생복지도 있고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자금융자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예진흥기금이라는 재원이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다 예술위원회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예진흥기금은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술위원회가 기금관리 주체로서 이런 부분을 재교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비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일부 쓰이고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일반회계를 받거나 체육기금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금의 재원과 재원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맞습니다. 중요사항 보고를 해 드렸는데요. 이런 규정에 의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 집행 과정들은 항목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일부는 우리가 이해 관점에서 공감하고 나면 업무의 효율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이런 전체적 포괄성을 가지고 우리 기구가 향후 발전적인 비전을 준비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문화예술의 방향에서 이 시기에 조금 더 해야 할 능동적인 준비라면, 우리 아르코의 법률적 가치에서 조금 더 보완적인 개정안을 통해서 가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빨리 법률적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 한 줄이 있어야 모든 근거가 시작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안건에 대해서 다소 부분적인 내용은, 이것은 실행 보고로 접수를 받도록 하는데요. 동의를 해 주시면 접수를 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현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으로 안전보고가 3가지가 있는데요. 내용도 가능한 회의자료 문건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면서 핵심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강병주 문화누리팀장님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안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입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추경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어서 겸업이든 전업이든 예술인 대부분이 안정적인 급여가 없고 그래서 시중은행 이라든가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자생적인 생활기반을 만들어드리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본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복권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 융자사업비는 280억 원입니다. 특이하게 추경사업이 융자사업비 320억 원으로 본 사업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고요. 각각 운영비가 7억 8,000만 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의 상품은 102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2가지 유형으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인데요.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상환기간은 3년에 걸쳐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하게 됩니다.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1인당 최대 1억 2,000만 원을 융자하게 되고 담보대출입니다. 전세금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이고 2년이 지난 후 만기 일시상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을 2년씩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8년까지 대출을 갖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일시상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본예산 140억과 추경예산 140억으로 총 280억 원 대출을 하게 되면 전체 4,800명 정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140억과 추경예산 180억을 해서 320억 원에 대해서 약 267명 정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금년도에 약 5,050명 정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3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7억 8,000만 원에, 대부분 이 상품 심사와 신청접수를 관리하게 되는 계약직 인건비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2억 2,700만 원 그리고 사무공간을 확충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용역비가 1억 4,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콜센터 상담용역비가 8,000만 원 그리고 신용정보와 권리조사 등에 대한 수수료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통합홍보가 2,000만 원 정도, 결산회계 감사료가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 시스템이 구축된 지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만큼 융자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2억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운영이 되었고요. 그간 대출을 받은 인원이 약 1만 6,500명 정도가 됩니다. 대출 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 증명제도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21만 3,000명 정도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증명제도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분이 13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만 7,000명 중에 전년 말까지 누계로 1만 6,500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12% 정도 수혜를 받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우선 보고사항 접수를 하고 차후라도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고해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다섯 번째 보고안건 내용입니다.

2026년 공연예술관람료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강병주 문화누리팀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계속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공연예매권 즉 관람료를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공연예술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연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5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회부했구요. 국회 의결 과정에서 특이하게 10억 원이 감액되어서 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억 원 중에 티켓관람료 할인권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40억이고 운영비가 1억 원입니다.

사업방식을 말씀드리면 1만 원짜리 할인티켓을 40만 장 배포해서 전 국민들이 공연예술 관람을 할 때 1만 원을 할인받는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1인당 최대 2매씩 5개 예매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인당 10만 원까지 10매의 공연 관람 할인 티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할인 방식은 2가지 방식입니다. 온라인 관람권 할인방식과 현장 할인방식이 있습니다.

자료 111페이지를 봐주시면 온라인쿠폰 발행은 5개의 예매처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네이버 예약과 놀 유니버스, 예스24, 타임티켓, 타임링크 등 5개 예매처를 선정했구요. 이들 예매처에서 온라인 관람권을 예매할 때 1인당 각 예매처별 2매씩 총 10매의 할인티켓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할인 관람료 할인제도는 비수도권에 소지하는 문예회관에서 유료 공연을 개최할 때 1인당 2매의 1만 원짜리 할인권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폰 적용대상 공연은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복합장르 등인데 111페이지 상단의 네모 박스를 보시면 쿠폰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1만 원짜리 할인권이기에 때문에 1만 원 미만 공연이라든가 대중음악, 대중무용 그리고 팬클럽미팅 등 정식 공연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쿠폰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현장할인을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1만 원 이상의 공연에 대해서 1인당 2매의 할인권을 교부하고 나중에 문예회관의 매표가 끝난 다음 신청해서 정산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억에 대해서는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허용 공연에 대한 자문과 심사 사례비 약 300만 원 정도 그리고 회계검사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가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매체광고에 700만 원, 기타 정산용역과 홍보 대행에 가장 큰 금액인 7,6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전체 1억 원의 운영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시기별로 말씀드리면 5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0만장중에 24만장을 1차 사업시기로 정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나머지 16만 장을 2차 사업시기로 정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팀장님, 여기에 보니까 이번 사업도 그렇고 바로 전에 말씀하신 사업도 그렇고 주요 운영 인력에 보니까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의 본부장님과 공연정보팀 팀장님이 사업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인력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은 이런 사업은 그냥 기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내부 인력도 모자라서 찢찢매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해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제가 잠깐 설명을 누락했는데요. 앞의 사업이나 지금 사업이나 재교부 사업이고요. 앞의 사업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해서 그쪽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요. 지금 공연 예술관람료 사업도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직접 사업을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본부장이나 직원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직원입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해가 되면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래서 이 사업은 정책적 예산도 있고 정책을 실행시키는 당해연도 사항들이 있어서 장단점이 늘 있으니까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재교부로 가지만 정책사업의 관장은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에 맞는 기구의 영역 고민과 나주 본부를 어떻게 더 펼쳐 나갈 것인가의 2가지 축을, 다 묶으면서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성기숙 위원 : 약간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요. 우리 팀장님들도 계속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이 지점인데요. 정거장처럼 문예기금 재교부나 문체부나 기재부나 평등을 하다가 곤란한 것을 떨궈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책 발굴 사업이 아니라 정치 지원사업처럼 되어 버려서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큰 구상과 그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얘기를 계속해도 ‘공허한 메아리’였는데 그런 것들이 생산적으로 새로운 플랜이 짜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예매처로 참여하는 사업체 중에 ‘놀 유니버스’가 언급되었는데 맞나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예,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걸 현 문체부 장관님이 옛날에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해충돌’ 소지 등 관계가 없나요?

강병주 문화누리팀장 : 장관님이 전 대표로 계셨던 곳이 맞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현재는 사임을 하셨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따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부분부분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대외비로 비공식 회의를 했고 회의의 일정은 모두 공식화해서 오픈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렸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초예술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확산된 영역 혹은 미래지향적 영역을 다 놓더라도 기초예술분야의 실질적 지원예산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바우처 개념의 정책, 문화바우처, 복지, 생활안정자금 등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많은 예산 포션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예술창작지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지원 소요예산이 늘어나는건 권장할 일이고, 규모가 키워지면 키워질수록 좋은 일이긴 한데요. 한편으로 위원회 차원에서는, 기초예술

분야의 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예산의 고갈이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교부성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해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보고 내용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예, 그러면 안전을 접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고안전입니다. 202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경과보고에 대해서 정창호 기획조정팀장님이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7년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살림살이입니다. 이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래 저희가 오늘 의결안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까지도 하루에 3~4번의 수치가 바뀌고 전입금과 복권기금의 수치도 확정되지 않고 세부 단위의 수치도 계속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입과 지출 총괄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표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안건으로 하지 않고 보고안건으로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5월 31일까지 문체부 안은 예산처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라도 서면 의결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수립 경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저희는 가급적 마지막까지 창작지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편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앞 테이블에 사업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의 페이지는 118페이지입니다.

저희 2027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경과 보고입니다.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본부장 : 지금 말씀드리는 건 회의자료 118페이지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경과 보고라는 제목이 있는 1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뒤로 가면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결된 부분인가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기초예술 창작지원과 창·제작 인력육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의 고유목적과 역할을 명확화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계속 보고를 받으셨던 재교부 사업입니다. 이 재교부 사업에 대해서 일단 일반회계로 다시 이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개의 세부사업 관호로 175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본부장 : 지금 말씀드린 것은 책자로 테이블에 나눠드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저희 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지출 계획 총괄표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오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의결안건으로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입에서의 정부내부수입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못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지출 부분을 보시면 사업비부분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에 예술의 관광자원화가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에 45억입니다. 전통예술진흥재단과 예경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동그라미에 한스타일육성지원이라는 예산이 80억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예술해외교류라는 8억 2,200만 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공예문화산업육성이라는 42억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합치면 175억입니다. 이 175억 예산을 일단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기관은 공예디자인진흥원, 국제교류문화진흥원입니다. 그래서 175억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성 지원사업은 25페이지를 보시면 보조사업지정 주관단체 현황이라고 해서 밑에서 세 번째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잘 아시는 공연예술실태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연예술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지원이 36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22페이지를 보시면 7번에 저희 세부사업에 문화예술향유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외에 두 번째 동그라미로 청년문화예술패스지원이 있고 2026년도 예산이 약 360억입니다. 이 예산도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다가 집행률의 저조로 인해서 약간 기초예술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볼 수 있거나 엔터테인먼트 콘서트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넘기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창작지원을 집중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의 지역과 중앙 간 역할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하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역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액다건형이고 일회성 단기 중심이지만 중앙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규모, 중장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차별적 영역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역할 구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 밑에 있는 지역-중앙 상호 연계 강화라는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역예술도약지원이라는 사업을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8억 정도를 마련해서 진행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역에서 예술위원회에 신청하는 벽이 너무 높다. 중앙과 지역이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따로 따로 움직인다. 그리고 예술위원회의 직접 공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3가지 차원에서 중앙과 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 중에서 지역문화재단에서 추천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일정 부분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사업 연장 평가를 받으면서 매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정해서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역과 중앙 연계형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재단 중심으로 일단 설계를 했고요. 저희 문예진흥기금 400억입니다. 문예진흥기금 400억에 기본적으로 5대 5 매칭을 구상했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8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넣으면서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은 재구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지역과 기초예술 부분에 대한 핵심 아젠다를 기반으로 지역 간 재정이나 인프라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술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내용이 당연히 나오게 되고 그것이 그 윗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 단위 정책적 육성 영역 집중지원이라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사실 골고루 살피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예술위원회가 살펴줘야 할 사업을 제시해 준 것인데요. 특

히 지금 비평담론 구성이나 확산. 아니면 글로벌 공동 창·제작 협업지원. 요즘에는 특히 저희가 아웃바운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조성 중심지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설계했고요. 전국의 문화창작실 이용지원도 지역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모든 공유오피스를 갖고 있는 큰 업체를 저희가 잡아서 집필공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작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필요하고요. 특히 공연예술 쪽에는 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위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마찬가지로 기초예술 다양성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강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기초예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원편제를 유연화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1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예술창작지원이라는 사업 안에 동그라미가 7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것을 내역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일단 지역예술도약지원은 저희가 정리를 했고 특히 아르코공공예술은 저희가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도 각각의 장르별 창작지원 쪽으로 포섭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별첨자료로 보낸 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창작지원 쪽의 세부 사업별 분야별 창작공간이나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편제를 저희가 분야별, 장르별 창작육성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나 공간이나 매체 등의 지원이 한데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경상비 등 운영면에서 약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각각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될 수 있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을 했다는 얘기의 핵심은 청년예술가 지원이 그동안 예술인재양성팀에서 별도로 20억 규모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학부터 공연예술까지 전 장르를 1개 팀에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문학이나 시각, 공연 쪽의 각각 창작지원 쪽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배치했고요. 그래서 각 장르의 전문성을 살려서 성장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생애주기별 경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액시켰습니다. 특히 중견이상 분들은 다년 지원을 많이 하려고 저희가 개편 방안을 했고요. 특히 청년 예술가 지원 같은 경우는 17개 광역재단에서 모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만 차이가 있지 저희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을 바로 중견, 유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 단계의 청년 중 우수한 청년으로 특화를 시켜서 집중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종합적 예술인력 양성여건 제공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주목했던 점은 전국의 예술대학을 연계하는 창·제작 예술인력 육성 거점화를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술대학별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예비예술인들 그러니까 졸업을 하지 않은 창·제작 예비인력들에게 뭔가 창작의 기회나 성장을 매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이들이 졸업했을 때 다시 우리가 생애주기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비예술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재단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술위원회만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업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총계 말고 그 밑에 네모 박스로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 2026년도 저희의 전체 사업 총예산이 5,164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 대비했을 때 예비편성을 5,419억 즉 255억 정도 증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르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작가지원을 확대했다. 이것은 사실 다원이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필 원고료 단가 상승을 통한 창작환경 개선, 문예지 발간 지원을 확대했다. 문예지 발간 지원 같은 경우는 고무적인 부분이 예전에는 원고료 지원만 했는데 이제는 400만 원

에서 600만 원으로 원고료 지원을 올리고 문예지 인쇄료 발간비를 약 150만 원씩 편성해서 증액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했고요. 문학비평담론 활성화 이관은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 기금에서 받았습니다. 글로벌 독자 개발을 위한 K-문학 글로벌창작활성화는 신규 편성입니다. 이것은 문체부의 정책적 사업으로 저희 쪽과 협의를 했던 사업인데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신춘문예를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써서 외국인들에게 시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1억입니다. 포상금이라서 이 안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문학광장 포털을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각 다원 쪽으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단계별 시각예술 창작예술인 지원이 있습니다. 진입부터 유망예술인, 중견예술인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다원예술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예술가를 이 쪽으로 다 포섭시키고 증액시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공모대행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 제도가 변경되면 이 사업에 대한 전담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심사위원을 어떻게 할지 또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지에 대한 설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다원예술팀에서는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를 이번에 3억 정도 증액해서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에 대한 다년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연계 창·제작 지원을 통한 성장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 역시 정책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극 쪽에 민간 소극장이 상당히 어렵고 연극단체들도 공연 기회를 갖지 못한 단체들이 많아서 연극에 해당되는 장르를 대상으로 해서 공연장 연계 체계 사업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무용과 전통, 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통사업 부분에서 이 장르 쪽 포션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문체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연극 쪽을 굳이 우리 예술위원회 쪽에 부탁한 이유는 사실 사업기간이라는 게 대학로 지구에서 있는 많은 소극장들의 가동률도 고려가 되었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사업내용은 계속 변경 중입니다만, 예술위원회가 그래도 대학로에 있기 때문에 이쪽 사정을 잘 알고 이쪽 부분에 특화해서 맡아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 쪽에 이야기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 맥락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요. 아마 문삼화 위원님은 아실 것 같은데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는 말씀드린 대로 인바운드 국제 레지던시를 강화시켜서 우리나라를 문화예술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서 장르별 레지던시를 4개 확대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성장진입단계 예술인의 성장을 위한 예비예술인 투자, 예술대학 연계 창·제작 인력 육성지원, 아트 코리아인데요. 그러니까 AK2031입니다. 이게 예술대학지원사업이고요. 약 1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술대학이 준폐 위기에 있고,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예술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각 지역의 공연예술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창작공연의 환경 재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및 창작 거점으로 성장매개는 저희 대학로 예술극장 조명 시스템 교체입니다. 기존의 할로겐 조명 시스템을 LED로 교체해야 되고 사용하는 시스템이 정전이 많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보수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고, 2007년도 이후 교체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용이나 연극 같은 경우 조명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꺼져버리면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붙임자료를 보시면 예술창작지원이 쪽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문학창작육성, 19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문학창작육성 밑에, 되게 단순화시키기는 했습니다. 문학창작지원과 플랫폼 운영, 시각예술창작육성은 창작지원과 플랫폼 운영, 공연예술창작육성도 창작지원과 플랫폼 운영. 그러니까 밑의 내내역 사업 단위를 간소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마지막 단위에 있는 창작공간 활성화는 순감, 순감, 순감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각각 장르별로 이동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문학창작공간은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은 아니고요. 단계별 작가지원을 약 14억 증액했고 문예지 발간 지원도 약 7억 8,000만 원 증액해서 비평담론 활성화를 포함해서 문학분야는 2026년 21억에서 약 46억이 증액된 67억 정도로 증가율이 거의 219%에 달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작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예술도약지원은 순감입니다. 121페이지에 나오는 신규.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부 사업단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400억이 증액된 지역-중앙 연계형 창작생태계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50억 정도는 기존 지역재단, 광역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초 창작지원을 신청해서 거기에 국비 지원을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재단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단가의 편차가 큼니다. 그래서 돈을 주기는 주는데 창작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통해서 250억 정도는 기존 광역재단에서 하고있는 창작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을 통해서 물량보다는 단가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역별로 지역의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레퍼토리라고 얘기하면 대구는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되거나 경기도 같은 경우 상상플러스를 개발해서 AI 등을 특화지구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을 신청받아서 일정부분 100억 정도는 지역의 레퍼토리 특화 육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극 3특 등 광역권 간 함께 들어오는 컨소시엄에 대해 지원하려고 일부 금액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협의 과정에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크게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서울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육성에서는 저희가 신규 증액 편성에 예술대학 AK2031에 150억이 순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윗단에 보면 예비예술인 부분은 당연히 순감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정리하고 이쪽을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 예비예술인지원은 순감이 되었고 AK 예산을 따지 못 한다면 리스크가 크기는 큼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문체부와 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도 획득하도록 하고요. 청년 예술가 20억이 순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각 장르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예술인력 육성 부분에서 연수단원 지원이 약 30억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획인력과 실연인력이 있을 때 실연인력 중심으로 연수단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른 문체부 사업과 기획인력은 연수단원이 약간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리모델링 부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기술 관련해서 그 예산이 반영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아시다시피 재교부 사업입니다. 그대로 복권기금에서 사용신청 결과를 반영한 것이 어제였고요.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가치 확산 부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22페이지 마지막 문화예술향유지원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순감이 되었다는 부분을 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예술 산업 금융 융자지원 사업은 추경으로 300억을 더 받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5억이 증액된 265억으로 일단 저희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재교부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을 받게 되면 저희가 6월부터는 예산처 설명을 해야됩니다. 문체부와 같이 예산처에 설명을 할 것이고요. 최대한 이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업계획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정상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 중기계획이 나오고 3월, 5월부터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6월과 8월에 예산처와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하시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결과는 이렇고요. 이 내용이 예산처에 갔을 때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보고를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내용처럼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짜기에 살림구조와 정책구조, 우리의 여러 현안들과 맞물리는 만큼 이 자료를 조금 더 활용해 주시고 책자로 드리는 사업설명자료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익숙하게 체크해 주시면 회의의 내용이 풍부해지 것 같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너무 하루하루 긴급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오늘 보고안건이 아니라 의결안건으로 상정을 올려서 추진해야 되는데 너무 변화가 심한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을 보완하고 나면 부득이하게 절차상 30일 이후에는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문체부의 안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서면결의로 각 위원님들의 이메일로 부의사항 자료로 지금 설명한 내용의 최종 문체부와 확정된 최종안을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계속 검토하시면서 최종 자료를 보내드리면 상정안건으로 서면결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업무 추진의 원활함이 있겠고 내년도 예산 구축에, 그다음부터는 부연설명을 한 것처럼 기재부와 정말 치열한 예산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기능이라서 문체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기획예산처에서 가감 혹은 확정되고 나면 변동이 어려운 것이 있어서 아직 확정안은 아니지만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우리 아르코에서 직접 지원 선정한 샘플 중에서 문학창작관의 토문재라는 인송문학촌을 해남 군청 답사를 하면서 현장 답사도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문학관 관장님이 너무나 힘든 여정이라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임직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속해왔습니다. 부인도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오셔서 함께하시는 모습에 제가 현장에서 몽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사재를 털어서 문학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마침 문체부 장관상을 받게 되어 완공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전국의 문학관 중에 가장 응모가 많은, 그래서 약 20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그 중에 5명을 선정하는 경쟁률을 갖는 문학관으로 짧은 시간에 거듭났는데요. 이런 과정이 현장 예술가 혹은 예술기획자 그리고 또 우리 아르코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들이 나름대로 많이 진정성으로 노력하는 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수시로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관도 우리 아르코가 미술도 건축도 그냥 예술감독 제도로 해서 지원만 하고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용도 보완되고 개정돼서 커미셔너 역할은 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술감독은 말 그대로 전시감독으로서 큐레이터 역할로 가고 커미셔너 역할은 아르코가 하고요. 그러면 9기 위원회가 그런 커미셔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르코미술관팀이 현장팀인데 과장, 팀장, 주임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관계를 씬 없이 뛰고 노력하는 게 현장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감동을 생각하면 다소 보완하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조금 더 믿고 맡겨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효율적으로 가면 성과가 더 좋겠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끼고 있어서 저도 마침 현장의 답사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예술인력개발원도 가보니까 열악해요. 그러나 공간은 2,000평이나 됩니다. 2,000평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나주 본부를 가는 것보다 거기는 더 유배지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발령을 받으면 유배를 받는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신 있게 해 온 과정이 있지만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조금 사양 프로젝트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은 당연히 취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더 보완하기로 하고 잘하는 측면은 곳곳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서면 결의를 할 수밖에 상황을 미리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서면보고 내용을 보내드리면 바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보고는 끝까지 잘 검토해 주시고 조금 더 확정되고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설명은 따로 보고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무처에서 촉박한 시간 내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재부 설명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한 것도 올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낯설지만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보겠습니다.

무용분야에서는 문예기금지원에서 그동안 공정성에서 문제가 지적된 게 중복지원, 다건지원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지정사업, 왜 특정 단체를 지정하느냐? 이것을 공모제로 전환하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국무용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무용제는 우리 정창호 팀장님이 공연예술팀을 하실 때도 2026년으로 지정사업이 종료되니까 공모제로 전환, 그다음에 그 사업의 주체도 특정 협회에서 할 것인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의아스러운 게 최근 인천지역신문에서 4월 초에 2028년 문예기금 6억, 인천시 9억해서 합해서 15억으로 2028년에 인천시에서 전국무용제 확정이라는 기사가 나서 무용계에서는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여론이 좋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경위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지정’으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문체부 부처안이고 이것을 가지고 차후에 의결이 되면 기재부 설명자료로 추진이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무용분야 비상임위원인 저하고 일체 사전에 논의나 협의가 없었는데 혹시 이렇게 확정돼서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예위 사무처 자체의 판단은 아닐 것 같고, 혹시 문체부와 협의가 된 것인지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공공재단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정관을 보시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거기의 대표자도 이사들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가 여기에 대한 인사권이나 개입할 수 있는 게 정관을 보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생긴 것은 전문무용인 직업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 해 오는 사업에서는 처음 생겼을 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브니엘 예고생 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입시생의 과중한 압박이라든가 무용계가 갖고 있는 생태계와 연동된 문제인데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도 매년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예고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들이 마스터클래스, 그러니까 입시를 전제로 강습회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이렇게 공공재원을 투입하는데 공적인 측면에서 “무용계의 발전을 위해 과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라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으로 하는데 왜 이런 데를 지정합니까? 그리고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이 전부 투명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부로 올라가도 무용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풍토로 바뀌었어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문화예술위원회가 새로운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큰 플랜과 고민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칫 이런 걸로 인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발걸음에 저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무용제와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지정’된 과정 또 인천에서 2028년에 개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 2가지에 대해서 경위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용분야 위원으로서 무용계의 대변자로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창호 팀장님이 기획조정팀 팀장을 하시기 전에 공연예술팀 팀장을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다 알고 계시고 문제점도 알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주무부처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천시와 협약한 관계 내용이 아르코가 왈가왈부하기에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게 지원의 연장에 상관이 있다면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가지는 확인을 하고요. 사실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문제는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지만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사실 위원님과 사무처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와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치적 정책’ 성격으로 추진되나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아니요. 다만, 저희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수립시 전체 15%나 20% 감액을 할 때도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문예기금에서 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문체부 입장에서 저희 쪽에 이 부분을 살리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 쪽에 있으면 같이 감액 당하기 때문에 저희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하시고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정권, 진보정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전문무용수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불공정’이라고 얘기되는 여러 가지.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념의 프레임을 넘어 ‘공정의 가치’ 실현에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그렇게 가고자 하면 체질개선을 해야 합니다. 정관도 개정해야 하고요. 정말 공공의 영역에 맞는 기관, 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런 문예기금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체질개선 상관없이 일반회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제가 도와준다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데 동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의 사실관계는 주무부처에서 기본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여러 각도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기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장르 분야에서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방통행식 의견은, 또 집행도 일방통행식은 허용되지 않으니까 위원회 제도에 맞게 논의하고 검토할 부분은 하되 업무의 효율성과 부득이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검토도, 정말로 해야 되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제로 수정제안을 보완하면서 지원의 고리를 찾고요. 원래 취지 목적에는 우리가 심사 제도도 늘 현장의 민원이 관련 부처로 계속 들어오고 결국 위원회로 들어오는 민원. 당선되는 인원은 너무 극소수니까 떨어지는 곳은 다 불만이 있게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해관계를 보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모순되고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전제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도개선도 하되 현장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소통을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제안해 준 부분은 참고삼아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취합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고내용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니까 의견을 마무리하면서 있으면 짧게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 구조에서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예산이 줄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예술지원에 대해서 창·제작이나 공연지원은 꾸준히 향상되고 증액이 되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가보면 관람객이 적고 제가 리플렛을 보면 내용

이 별로 없어요. 콘텐츠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공연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해 줘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쪽 보니까 예술지원 정보 안내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된 것 같거든요.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알겠지만 혹시라도 예산 조정 속에서 “뭔가를 더 추가할 게 없느냐?”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줄은 것의 가장 큰 것은 예술자료디지털화 14억 이 계기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든 것이고요. 나머지 예술기부활성화 5억 같은 경우에는 일부 후원활성화 부분에 약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의견주신 내용도 조금 더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합리적 답변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문제는 지금 현재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이 결정되어 가는 단계고 그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항목이 예산 지원에서 삭제되거나 가감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혹은 정책적, 이것은 말 그대로 공화국의 시스템이니까 정책화 되어져 있는 것.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것. 순수창작지원보다도 지금은 바꾸쳐 지원이나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문제도 유기적으로 보면 다 예술현장으로 가는 지원이라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현상의 정책도 전 세계에서 드문 정책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랬을 때는 장점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문화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오히려 거꾸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정책적 시스템을 지원체계에 넣는 지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는 현상도 생길 정도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보완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안전에 대해서 경과보고 접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해서 접수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해서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우선 6개 보고안전까지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고 사무처장은 사무의 효율을 위해 6월 정기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해서 일정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기존 관행으로 보면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해 왔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회의 일정 조정)

이범헌 위원장 : 26일 오후 2시로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차기 회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으로 받았던 사업들 중에 시각과 공연 쪽의 작품제작이나 전시지원사업 등 공간지원사업 2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심의 중이고 심사결과가 6월 중순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10%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어서요. 6월 26일 전에 추경 공모사업이 정리가 되면 그것에 대해 서면의결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6. 폐 회 선 언

이범헌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포함해서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회의 자료를 상세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연장선상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런 항목들에 대한 서면 결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의 절차에서 진행된 내용은 모두 다루었고요. 첫 위원회고 우리 9기 위원회 출범의 의미가 있어서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했고요. 우리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차 회의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다소 늦어졌지만 협조와 중요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마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41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6분 회의 종료)

